



제 1 회 국제축산기술 기계전 참관기

김 정 응
(다다상사 대표)



VIV-ASIA (제 1 회 국제축산기술기계전)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중소가축 중심의 최첨단 기술제품 및 기계 전시회로서 아세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국제적 행사였다. 우리 참가단 일행은 박람회 첫 날인 4월 21일 오전에 일본에 도착해서 곧장 양돈세미나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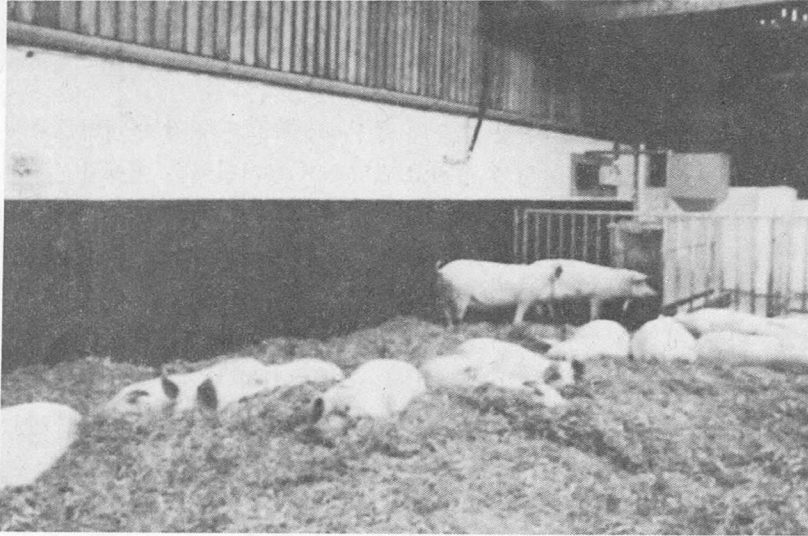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최근의 종돈개량과 관련한 유전공학분야의 연구보고, 돼지의 영양과 환경조건, 새로운 사양기법등이었다.

지면제한으로 설명드릴수 없으나 필요하신분에게는 세미나 교재를 나누어 드릴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국에서 온 50여개 기업에서 각종 축산 기계·기구를 전시했다. 가장 참관객이 많았던 부분은 현재 일본 양돈산업계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종돈(HYBRID-PIG)이었다. 세계적으로 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는 7개 종돈육종회사들은 일본의 축산종합회사들과 제휴하여 하이브리드 종돈을 계열농장에 보급하고 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종돈시장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공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하이브리드 종돈의 특징은 부계통은 산육능력과 도체품질 중심으로 선발개량했으며,모

계통은 번식능력과 포유자돈 보유능력을 중심으로 개량한 핵돈군(NUCLEUS HERD)을 3원 또는 4 원교잡하여 육돈을 생산하므로, 최대의 「잡종강세효과」와 세대교체기간의 단축, 계속적인 핵돈군의 능력제고등을 통해 번식돈의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고 육돈의 사료요구율, 일당중체량, 등지방두께, 배장근 단면적, 정육율, 육질등 주요경제형질면에서 괄목할만한 개량효과를 가져다주며 하이브리드육돈 사육농가의 생산비절감, 시설장비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높은 육돈 판매가격을 받도록 해 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돈회사들도 이와같은 하이브리드종돈을 육종하여 일반양돈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는 종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7개종돈 육종회사를 모두 방문하여 그들의 육종역사, 육종기법, 핵돈군의 유전적능력개량과 검정, 각사의 종돈장점을 알기위해 이들을 이곳에서 소비했으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수 있었다. 이들 하이브리드종돈회사와 대화를 하는가운데 한 가지 확신을 얻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학자님과 전문가들의 협력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



◀ 영국 혼다이화사의 콤퓨타식 군사(群飼) 개체급이 시스템을 임신돈의 사차수증가와 경제수명연장에 지대한 효과가 있는 최첨단기술 제품

의 상표를 가진 하이브리드종돈을 육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일행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임신돈을 군사하면서 임신전기, 중기, 말기의 개체별 1일 사료요구량을 정확히 개체별로 급이할 수 있는 콤퓨터식 임신돈 급이시스템이었다. 영국의 HUNDAY사와 벨지움의 NEDAP사가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4~5년전부터 이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1개돈방에 40~50두의 임신돈을 군사하고, 각 개체는 목에 개체번호식별전자장치를 걸어주고, 사료급이스테이션을 1개소 설치하면, 콤퓨터가 정확히 개체번호를 식별하여 개체별 사료요구량을 공급해 주게되며, 만약 그날의 사료할당량을 특정개체들이 섭취를 못했거나, 일부만 섭취하면 이들 개체들의 사료섭취량을 콤퓨터가 화면(CRT)에 표기해 주며 인쇄·타자해 주므로서, 관리자가 이들 사고개체들을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분만에정일 5일전에 분만돈사로 옮겨야 할 개체번호들을 관리자에게 콤퓨터가 지시를 해주기도 하는 시스템이다. 임신기간중 각개체별 총사료섭취량과 사료비도 콤퓨터가 계산해서 보고해 주므로 분만돈사로 이동하기 직전에 개

체체중을 측정·기록한다면, 임신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물론 임신돈 스톨을 설치한 양돈장에서는 당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대단위 기업양돈장에서는 1대의 콤퓨터가 모돈 1,200두까지 관리하므로 검토해 볼만한 것이었다.

종돈의 능력검정시 배장근단면적(LOIN-EYE MUSCLE)을 측정조사하는데 일본의 SANKEN사가 생돈의 배장근단면적측정기를 개발전시하고 있었다. 이 측정기기는 종전의 미국제와는 달리 CRT화면에 천연색으로 나타나며 등지방두께와 배장근단면적을 선명하게 영상해주는 점이 특징이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양돈협회 종돈능력 검정소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을뿐이며 종돈장들이 종돈자가검정을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계기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 이외에는 수의용기기가 다수 전시되어 우리 참가단 일행중에는 이들 기기들을 많이 구입하는 분도 있었다. 유럽지역에서는 종돈에 이각(EAR NOTCH)도 하고 이표(EAR TAG)도 부착하나, 백색종의 혈통등록종돈에는 필히 이목기(TATOO)로 개체번호를 귀에 문신하는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목기로 종돈장의 고유번

호와 종돈의 개체번호를 넣어주므로써 종돈개체 식별에 오해를 배제하는것으로 안다. 우리 종돈업계에서도 연구하여 받아드리는 것이 좋을듯 했다.

일본회사들이 개발한 태양열 돈분뇨건조발효 시스템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들 시스템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개발보급되어 있는 것이 있었으나 일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된 것들이 있었다. 나중에 우리 일행이 노자와 (주식회사 야택조) 회사가 안내하여 방문한 8,000두 규모의 하이브리드양돈장에서도 돈분처리시스템을 볼 수 있었는데 새로 개량된 시스템은 매우 효과가 좋아서 공해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농장장이 일러주었다.

4 일간의 박람회기간중 또 한가지 특기 할것은 공산국가인 헝가리에서도 자유세계시장에 종

돈을 팔고져 종돈육종학자가 직접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고 있었으며 우리일행은 거래를 할수 없는 줄 알면서도 이 학자와 종돈육종에 관한 상호의견교류를 했으며,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해서 그런지 전혀 이질사회에서 온 사람 같지가 않았다.

이기간중 금돈육종농장의 김의수회장, 마니육종의 이계욱사장, 상원축산의 한춘섭사장, 우성사료의 전남수사장, 부국사료의 한호섭사장, 흥성부화장의 정상태사장, 한국양계경영연구소 김영환씨를 만날수 있었으며, 선진축산의 기술진 몇분과 천호부화장의 참가단들도 열심히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계에서 이런 국제적행사를 주최해 보는 것도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正藥院은 약만을 팔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축의 질병을 압니다.

우리는 약을 압니다.

우리는 사양관리를 압니다.

- 정약원은 거래처에 빠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20메가바이트의 대용량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국내의 유명약품 도소매
- 가축약품 판매업소 개별상담
- 농장개설에 따른 설비
농지촉구입, 방역계획상담



동물약품 正藥院

170-00 경기도수원시매교동 25-7

TEL. 32-1250